'축구, 희망을 향하여' 퍼포먼스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요하네스버그에서 5일 '축구, 희망을 향하여'를 주제로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월드컵 16강 주역 '해외파' 내주부터 출국

이청용 13일·기성용 15일·박지성은 26~27일께

축구協, 허정무호에 포상금 42억 5000만원 지급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를 사상 첫 원정 16강으로 올렸던 해외파 태극전사들이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해 발걸음이 빨라진다.

지난달 29일 귀국 후 국내에서 꿀맛 같은 휴식으로 재충전 시간을 가졌던 유럽파들은 6일 청와대 초청 오찬에 참석하고 나서 출국 준비를 서두른다.

유럽파 가운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이청용(22·볼턴)이 가장 먼저 출국한다.

이청용은 오는 13일을 전후해 영국으로 돌아가 8월14일 막을 올리는 2010~2011시즌을 준비하는 한편 구단과 연봉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프라이부르크에서 이적한 차두리(30)와 스코틀랜드 셀틱FC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미드필더 기성용(21)은 15일쯤 소속팀 투어가 진행될 미국으로 넘어간다. 셀틱과 2년 계약한 수비수 차두리도 기성용과 함께 미국 투어에 참가해 새 둥지 적응에 나선다.

공격수 박주영(25·AS모나코)은 11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열릴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와 친선경기에 참가하고 나서 다음 주중 프랑스로 넘어갈 계획이다.

유럽파 '맏형' 박지성(29·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은 24일 수원에 건립될 유소년 축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한 뒤 26일 또는 27일 영국으로 건너가 몸을 만든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 엔트리에 들었던 23명 가운데 기여도에 따라 A등급 1억7000만원, B등급 1억4000만원, C등급 1억1000만원, D등급 9000만원을 지급했다고 5일 밝혔다.

조별리그 3경기와 우루과이와 16강 등 네 경기 연속 풀타임으로 뛰며 그리스와 조별리그 1차전에서 쐐기골까지 사냥한 주장 박지성은 A등급으로 분류돼 1억7000만원의 목돈을 챙겼다.

이와 함께 간판 골잡이 박주영(25·AS모나코)과 주전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 이청용(22·볼턴) ,이정수(30·가시마)와 조용형(27·제주), 골키퍼 정성룡(25·성남), 미드필더 김정우(28·광주 상무), 왼쪽 풀백 이영표(33·알 힐랄), 중앙 미드필더 기성용(21·셀틱) 등 주전급 11명이 A등급에 포함됐다.

B등급 5명, C등급 3명, D등급 4명이지만 구체적인 등급별 선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표팀 사령탑 재계약을 포기한 허정무(55) 전 감독은 16강 진출 포상금으로 3억원을 손에 넣었다.

선수 23명과 코칭스태프에 지급된 포상금 총액은 42억5000만원이다. /연합뉴스

비야 〈스페인〉 축구역사를 바꿔라! 클로제 〈독일〉

비야, 현재 5골 득점선두…스페인 출신 첫 득점왕 기회

클로제, 역대 월드컵 최다 골·두대회 연속 득점왕 도전

60년 만에 '무적함대' 스페인을 월드컵 4강으로 끌어올린 다비드 비야(29·바르셀로나·5골)와 지난 대회 득점왕에 빛나는 '전차군단'의 맏형 미로슬라프 클로제(32·바이에른 뮌헨·4골)가 월드컵 축구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장식할 준비를 모두 끝냈다.

우선 스페인 최고의 골잡이로 떠오른 비야는 지난 3일(한국시간) 치러진 파라과이와 8강전에서 후반 38분 결승골을 터트려 스페인의 1-0 신승을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스페인은 지난 1950년 브라질 대회 이후 무려 60년 만에 4강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다.

더불어 비야는 이번 대회에서 5골을 기록, 득점 선두로 나서면서 사상 첫 스페인 출신 득점왕 등극의 기회를 잡았다.

비야는 오는 8일 새벽 독일과 4강전에서 골 맛을 보고, 결승이나 3-4위전에서 연속골 기록을 이어간다면 1970년 자이르지뉴 이후 40년 만에 월드컵 최다 경기 연속골과 동률을 이루게 된다.

준결승에서 비야와 대결을 펼칠 독일의 골잡이 클로제도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클로제는 아르헨티나와 8강전에서 두 골을 터트리며 자신의 역대 월드컵 골 기록을 '14골'로 늘렸다.

지난 2006년 독일월드컵에서 득점왕(5골)에 올랐던 클로제는 이날 두 골을 보태 4골을 기록하며 사상 첫 두 대회 연속 득점왕의 진기록도 노릴 수 있게 됐다.

클로제는 앞으로 넣는 골들이 모두 월드컵 기록으로 남게 된다. 오는 8일 치러질 스페인과 4강전에서 한 골을 보태면 클로제는 3개 대회(2002년, 2006년, 2010년)에서 5골씩 터트리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게 된다.

만약 2골을 더 넣으면 호나우두(브라질)의 역대 월드컵 통산 최다골(15골)을 뛰어넘는 주인공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연합뉴스

조한승·박정환·최철한 '태극마크'

亞게임 바둑 국가대표 선발전

'일병' 조한승과 '고교생' 박정환, '독사' 최철한이 광저우행 국가대표팀에 승선했다.

한국기원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남자단체전 국가대표 선발 최종리그'에서 조한승 9단과 박정환 8단, 최철한 9단이 나란히 5승2패를 기록해 남은 대국에 상관없이 국가대표를 발탁됐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대표팀 선발전은 5월랭킹 3위~6위(최철한, 박정환, 박영훈, 조한승)와 2명의 2차예선 통과자(윤준상, 강동윤) 등 6명이 2차례의 풀리그로 4명의 대표를 선발한다.

지난 1일부터 시작한 2차리그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5승을 거둔 조한승, 박정환, 최철한이 잔여대국을 모두 패하더라도 다른 선수보다 앞서 일찌감치 대표를 확정짓게 됐다.

랭킹 1~2위로 대표팀에 직행한 이세돌 9단과 이창호 9단과 함께 속속 '흑백 태극전사'가 확정됨에 따라 이제 마지막 남은 티켓 한 장의 행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저우행 최종 티켓은 강동윤 9단과 윤준상이 다툰다. /연합뉴스

이세돌 후지쓰배 준우승

이세돌이 후지쓰배에서 준우승에 머물렀다.

이세돌 9단은 5일 일본 도쿄의 일본기원에서 열린 제23회 후지쓰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중국 랭킹1위 쿵제 9단에게 흑으로 269수만에 12집반을 패하며 준우승에 그쳤다.

쿵제가 우승하면서 한국은 지난해 강동윤이 되찾아왔던 후지쓰배 우승컵을 1년만에 다시 중국에 넘기고 말았다. 쿵제는 후지쓰배마저 품에 안으며 세계대회 4관왕으로 자신의 시대를 활짝 열었다. /연합뉴스

"최고 10번은 바로 나"

포를란(우루과이) - 스네이더르(네덜란드) 자존심 대결

우루과이의 디에고 포를란(31·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과 네덜란드의 베슬러이 스네이더르(26·인터 밀란)의 오기와 자존심이 정면 충돌한다.

이들 스타는 오는 7일(이하 한국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 그린포인트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10 월드컵 4강전에서 저마다 조국의 월드컵 역사를 새로 쓸 핵심 요원으로 출격한다.

포를란은 이번 대회에서 3골, 스네이더르는 4골을 터뜨려 세계적인 공격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루과이가 자랑하는 부동의 최전방 공격수 포를란은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2008-2009시즌에 득점왕(32골)에 오른 대형 스타다. 지난달 17일 남아공과 조별리그 2차전에서 두 골을 터뜨려 3-0 완승을 이끌었고 지난 3일 가나와 8강전에서 0-1로 뒤진 후반에 동점골을 넣어 4강 진출에 힘을 보탰다. 우루과이는 네덜란드와 준결승에서 포를란의 발끝에 거는 기대가 더 커졌다. 포를란과 함께 공격을 이끌던 루이스 수아레스(아약스)가 8강전에서 레드카드를 받아 준결승에 결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맞선 네덜란드의 공격형 미드필더 스네이더르는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다. 결승골을 2차례 터뜨리는 등 발끝의 순도가 매우 높다. 스네이더르는 지난 3일 치러진 8강전에서 0-1로 뒤진 후반에 동점골을 터뜨린 데 이어 역전골까지 뽑아내 우승후보로 첫 손에 꼽히던 브라질을 주저앉혔다.

포를란과 스네이더르는 같은 등번호(10번)를 달고 있다. 팀에서 해결사 또는 에이스에게 달아주는 등번호이다. /연합뉴스

광주서 '국제정구대회' 팡파르

11일까지 염주테니스장…11개국 500여명 참가

NH농협 2010 광주국제정구대회가 6일부터 11일까지 염주실내외 테니스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며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인도, 폴란드 등 11개국 500여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6일 오후 5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7~8일 남녀 개인복식이 진행되며, 9~10일에는 남녀 개인단식이 펼쳐진다. 11일에는 개인복식·단식 4강 경기와 결승전이 치러진다.

대회 결승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KBSN스포츠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지역 선수들도 대거 참가해 우승에 도전한다.

지난해 대회 남자단식 우승자 허경진이 버티고 있는 광주동구청과 조선대, 순천시청, 동신고, 순천여고, 동신여고가 광주·전남의 명예를 걸고 코트에 오른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정구남녀국가대표팀 12명(사진)은 지난 2일부터 염주테니스장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